

홍콩의 Video Tape 산업

1985년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JVC의 단속이 있고 난 후부터 홍콩의 비디오 테이프 업체들은 VHS 테이프 제조 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고성능의 생산 장비를 설치하고 생산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8개 업체 중 2개 업체만이 라이선스를 얻고 NTSC와 PAL/SECAM 시스템의 VHS 테이프를 생산하고 있다.

지난 6월에 개최되었던 월드컵 대회가 비디오 테이프의 수요를 촉진시켰으며 어느 업체든 금년도 주문이 50% 증가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의 가격에 이어 현재의 가격도 최고의 수준이지만, 생산원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原테이프의 가격이 인하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테이프의 가격은 떨어질 것 같지 않다.

홍콩의 비디오 테이프 산업에 原테이프 공급 업체로는 소규모의 홍콩 국내 업체들도 있지만 대규모의 주요 공급 업체는 일본과 한국의 비디오 테이프 업체로 알려지고 있다.

本稿에서는 Hanny Magnetics, Swilynn, Inter-Cassette, Magnetic Technology, Jackin Video Cassette Company, Chan's Florence Metal Factory, Intersources 그리고 Wing Shing Cassette Manufactory 등의 업체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977년에 설립된 Hanny Magnetics社は 2개 공장에 총면적 5,574㎡에 450명의 종업원이 있다. 금년 1월에 VHS방식의 비디오 테이프를 생산하도록 JVC의 라이선스를 획득하였으며 월평균 생산량은 180만에서 200만개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월평균 200만개의 플로피 디스크와 100만개의 플로피 디스크 자켓을 생산하고 있다.

Hanny 비디오 테이프에는 NTSC 시스템용의 T형 테이프, PAL/SECAM 시스템용의 E형 테이프, 그리고 모든 TV 시스템용의 B형 테이프를 생산하고 있으며 주요 공급대상은 OEM방식과 녹화 전용이다.

가정용으로서 T-120과 E-180형의 테이프가 있으며 녹화용으로서 30, 60, 90 그리고 105분 짜리의 테이프들이 있어 Super-A와 녹화 수준으로 여러 종류가 생산되고 있다고 同社의 판매부장은 말하고 있다.

Hanny의 原테이프는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공급되며 소규모로 홍콩 국내에서도 공급되기도 한다. 녹화용 테이프는 주로 Sony와 TDK에서 공급하고 있다. 완제품은 미국과 유럽으로 선적·출하되고 있다.

T-120형 테이프는 FOB가격으로 개당 美貨 2.75에서 2.85弗이며 E-180형은 2.85弗이다. 이들은 공히 VHS방식이며 ABS플라스틱 외장으로 高緩衝(고완충) 플라스틱 케이스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의 가격은 JVC 로열티와 原테이프의 가격이 10% 상승하여 그에 상응하는 비율로 인상되었다. 円貨 상승과 로열티의 円貨지급으로 더욱 더 테이프 가격의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으며 原테이프의 가격인하만 이루어진다면 완제품 테이프의 가격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同社의 판매부장은 강조하고 있다.

1974년에 설립된 Swilynn社は 3년전부터 비디오 테이프 생산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JVC로부터 라이선스를 획득한 것은 작년이었다. 同社は 총면적 2,755㎡에 100명의 종업원이 있으며 생산원자재의 90%를 비디오 테이프에 그리고 나머지 10%를 오디오 카세트 금형에 치중하고 있다.

현재의 월평균 생산량은 50만개이며 새로운 생산장비를 설치하고 난 8월부터는 월평균 100만개로 증산할 계획이라고 同社の 판매부장을 말하고 있다.

또한 同社は T, E, B형의 테이프를 표준형, 고급형, Hi Fi형 등으로 구분, 생산하고 있다. T-120과 E-180 표준형 테이프는 FOB 가격으로 개당 2.95弗이며 이는 녹화용 30, 60, 105분 테이프에도 동일한 수준이다.

同社の 테이프는 모두 VHS방식이며 상표는 Swilynn이나 Cosmag을 쓰고 있다. 비디오 테이프의 금형은 일본으로부터 공급되며 原테이프는 일본과 한국에서 수입되고 있다. 同社の 판매부장은 한국의 테이프의 품질은 향상되었으며 이제는 일본제품과 거의 비슷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그는 “향후 5년간 비디오 테이프 산업은 계속 확대일로에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수요 증대를 이용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원가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原테이프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대량 생산을 한다고 해도 비디오 테이프의 가격은 인하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1977년에 오디오 테이프와 그 부속품을 생산하기 시작한 Inter-Cassette社は 그후에 태양전원 전자제품과 비디오 테이프 등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여 왔다.

同社は 생산재원의 약 40% 정도되는 3개의 생산라인을 갖고 일평균 2만개의 생산능력으로 비디오 테이프 생산에 치중하고 있다. 同社は 2,929㎡의 공장 총면적과 350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다. 同社가 현재 생산하고 있는 T-90, T-120, E-120, E-180 테이프들은 공히 FOB평균가격은 2.50弗이다. 또한 同社は 개당

70센트의 高緩衝 플라스틱이나 개당 90센트의 ABS플라스틱으로 된 V-O 테이프 성형품을 공급하고 있다. “同社は 한국으로부터 Super A급 原테이프를 공급받으면서도 일본의 고급 테이프 공급업체를 찾아보고 있지만 만약 일본 테이프를 사용한다면 생산원가가 30~40%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Lam부장은 말하고 있다.

同社は JVC의 라이선스를 획득할 계획에 있다. 총생산의 절반은 미국으로, 30%는 유럽으로, 나머지 20%는 中東과 서남 아시아로 수출하고 있다.

비디오 Pancake 테이프 공급업체인 Magnetic Technology社は 918㎡의 공장에 60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다. 필름과 마그네틱 테이프, 산화물 등과 같은 원자재와 기타 화학물질들은 일본과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월평균 생산량은 1/2인치 테이프 7,500만m이다.

同社は NTSC와 PAL/SECAM 시스템의 전문 테이프를 공급하며 FOB가격으로 100ft 당 18~20센트이다. 생산량의 대부분은 미국으로 출하되고 나머지는 국내 시장에 출하되고 있다. 同社は 계열 자매업체 Hanny Magnetics社에 原테이프를 공급하고 있다.

同社は 미국에서 수입된 원자재로 가격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값싼 노동력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Frank Tam이사는 말하고 있다. 또한 그는 同社は 신기술 개발을 연구하는 R&D팀이 있으며 품질향상과 원가절감을 시험하는 고문단을 고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경쟁으로 인하여 가격이 작년에 인하되었으나 수출량은 몇달 동안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円貨 상승으로 원자재의 급등과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1982년 비디오 생산을 개시한 Jackin Video Cassette社は 100명의 종업원이 1,300㎡의 공장에서 생산에 종사하고 있으며 월생산 36만개를 생산하고 있다.

原테이프의 적재는 반자동으로 이루어 지고 공기여과기가 있는 곳으로 옮겨진다. “同社は 3대의 적재 기기와 1대의 나선회전식 기계를 몇달 내에 설치할 것이고 이는 곧 생산원가의

인하를 촉진할 것”이라고 同社の Jacky Ho이사는 말하고 있다.

同社は 예전에는 3 종류의 Tape를 공급하였지만 현재에는 E-180과 T-120의 2가지 테이프를 공급하고 있다. 하나는 A급이며, 다른 하나는 A&B, 즉 A이하 B이상인 수준의 테이프이다. E-180 테이프는 A&B급으로 FOB가격 2.20弗이며, A급으로는 2.27弗이다. T-120 테이프는 A&B급은 2.15弗, A급은 2.24弗이다.

외장은 高緩衝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며 각 테이프는 셀로판지로 싸서 카드 케이스로 포장되어 있다.

“原테이프가 점점 비싸지기 때문에 A급 테이프의 가격을 30.3m 당 23~27센트로 인상하였다. 同社は 현 가격수준을 약 6개월동안 안정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同社は 原테이프의 75%를 한국에서 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홍콩 국내에서 공급하고 있다. 총생산량의 2/3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나머지는 서독으로 수출되고 있다. “몇몇 서독의 바이어들은 홍콩으로부터 테이프를 수입하여 이들을 유럽의 다른 국가에다 재수출하고 있다.”고 Jacky Ho 이사는 말하고 있다.

同社は JVC 라이선스를 획득하려 하지만 현재 직면한 관심거리는 한계에 다다른 생산효율을 개선하는 것이다. Jacky Ho 이사는 “JVC 기준을 맞추는 데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려면 2주일 정도 걸릴 것이다. 原테이프의 재질은 한국의 공급업체가 JVC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있는 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JVC의 기준을 맞추는 데 필요한 장비의 설치는 생산원가의 약 20% 상승시킬 것이고 또 이는 바이어들이 외면을 하게 될 요인이 될 것임을 그는 부연하고 있었다.

1969년에 설립된 Chan's Florence社は 1978년에 V-O 테이프 성형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2개의 공장은 1,115㎡이며 57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다. 월평균 생산량은 V-O 테이프 성형품이 17만개이며 비디오 카세트 부품은 50만개 이상이다.

同社は 原테이프를 자체 생산 내지 적재를 하지 않고 있으며 原테이프를 생산한 Client를 위해 적재를 하고 있으며 반자동화 기기를 갖추고 있다.

同社は 현재 일본의 테이프 공급업체와 협상 중이며 금년 9월중에 同社の 테이프를 출하할 것을 원하고 있다. 同社の 생산자재의 절반은 V-O 외장 테이프용이며 나머지는 카세트 부품과 카트리지 리본용이다.

同社は 새로운 금형 2개를 마련하여 V-O 테이프 성형품의 생산을 40만개로 곧 증가하게 할 것이라고 Simon Chan 이사는 말하고 있다. 일본의 금형은 홍콩 국내의 것에 비해 2~3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주로 홍콩 국내의 것을 사용하고 있다.

同社の 공장은 종업원을 위한 air-shower와 air-filter 등과 같은 시설들을 설치하였고 同社の 테이프 적재를 하는 하청업자는 QC 운동을 지속하고 있다. 同社は 플라스틱 소재의 2/3를 홍콩 국내에서 공급하고 그 나머지는 싱가포르, 한국, 대만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공급하고 있다. 총생산량의 40%를 미국에 수출하고 나머지는 서독과 인도 그리고 싱가포르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 금년도의 주문은 약 3배가 증가하였는데 Simon Chan이사는 이는 월드컵 대회가 주요 요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同社は 생산제품의 기준을 꾸준히 향상시키려 하고 JVC의 라이선스를 획득하려고 하고 있다.

1983년에 설립된 Intersources社は 작년엔 비디오 테이프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同社は 918㎡의 공장에서 30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다. 同社は V-O 외장 테이프, 오디오 카세트,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레코더의 헤드 크리너 등을 생산하고 있다. 비디오 테이프의 월평균 생산량은 30만개로 이는 생산능력의 75%이며 적재 공정은 자동화되어 있다고 Kan Wong 판매부장은 말하고 있다. T형과 B형 테이프는 Super A급과 A&B급으로 FOB가격으로 개당 평균 2.20弗에서 2.60弗이다. T형과 E형 테이프는 30, 60, 90, 120분짜리이며 E형

테이프는 180분짜리도 있다.

외장은 ABS나 高緩衝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며 금형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원자재의 2/3 정도가 한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이는 原테이프의 주요 자재인 것이다.

소규모의 原테이프는 싱가포르, 일본, 대만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비록 한국의 테이프는 일본 것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가격적으로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총생산량의 80%를 미국이 수입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인도와 서독에서 수입하고 있다. “주문량은 작년 10월 이래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는 '86 월드컵 대회에 기인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수출량은 지난 몇개월 동안 감소하고 있지만 곧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1977년에 설립된 Wing Shing社는 오디오와 비디오 카세트 그리고 그 부속품의 제조업체이다. 공장은 1,837㎡의 면적으로 130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다. 월평균 4만개의 비디오 테이프와 6만개의 V-O 테이프 성형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자재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소규모로 오디오 부속품을 생산하고 있다.

同社は T형과 E형의 A급 테이프만을 공급하고 있다. FOB가격으로 T-120테이프는 2弗, E-180테이프는 2.10弗, E-120테이프는 1.70弗이다. 同社の 각 테이프는 ABS나 耐충격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며 셀로판지로 싸서 카드 케이스로 포장되어 있다. 原테이프는 주로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소규모로 홍콩 국내에서 공급되고 있다.

同社の 테이프 중 특히 T형 테이프는 수요층이 넓고 주문은 50%나 증가하고 있다. 총생산량의 70%는 미국으로 수출되고 나머지는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다. 同社は 중간과 고급제품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2, 3년 안에 JVC 라이선스를 획득할 계획으로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이 생산원가의 10여%를 인상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同社の 제품은 「Orchid」라는 상표로 출하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홍콩 비디오 테이프 업계의 JVC 라이선스 단속사건은 업체에서 생산원가의 상승을 초래하였지만 홍콩의 비디오 테이프 산업을 일정수준으로까지 정립해 놓게 되었다.

〈資料 : Asian Sources Electronics, July〉

P.29에서 계속

北京의 新華社 소식에 의하면 中共의 국산 錄音機, TV의 수출이 激增, 점차적으로 美, 歐, 日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금년 1~6月の 錄音機 수출은 무려 전년동기 대비 62배, TV 수출은 61배로 대폭 확대되었다.

전자공업 전체를 보면 1~6月の 전기제품 수출 계약액은 전년동기대비 9.4배로 2억 2,000만弗에 달하였다. 이제까지는 部品 수출이 주체였으나 금년에는 소비자 관계의 완성품 수출이 대폭으로 증가, 수출 구조에 크나큰 변화를 낳고 있다.

미국에서는 현재 Audio 제품의 75%가 Remote Control 기능을 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모콘의 편리성은 이해하기 쉽고 조작이 간단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普及 기종의 Audio 메이커도 심플한 Remocon附 제품을 내놓는 등 동기종은 급속히 늘고 있고 VTR 및 TV보다도 그 비율이 높다고 한다.

GE社도 Remocon을 중요한 기능으로 인정, Rack System 3 기종 중 2 기종을 Remocon 기종으로 출하할 계획이다. 東芝는 CD Player에 Remocon을 채용하고 있으며 Remocon 장비 전용 工場을 검토중에 있다.

이외에도 Marantz, 日立, Sansui 등이 Remocon 기종에 열기를 띠고 있다.

美 Audio, Remocon機種 급증

— 이해·조작 간단, 각社 적극 導入 —